

‘신해양·관광수도 전남’ 닷 올렸다

남부권 관광개발, 국가사업 반영 전남도 관광개발 2914억원 확보 10년간 다도해 명소 조성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계획에 전남도내 관광개발 사업비 2914억원이 반영되면서 전남도내 관광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문체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전국 5개 사도를 3개 권역으로 한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10개년간 약 6858억원을 들여 권역별 핵심브랜드 구축과 연계협력사업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3개 광역관광권 중 전남·경남이 포함된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 메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1933억원을 들여 ▲해양, 섬이 보유한 치유 콘텐츠를 특화한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섬진강권 힐링 여행 브랜드화 및 체류관광 기반 확대 ▲소소관광지 발굴·육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광주·전남이 포함된 남서권은 ‘남도문화 예술지대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1883억원을 들여 ▲다도해 함께 섬 프로젝트(섬 관광 활성화) ▲남도달밤 예술여행지 육성 ▲대한민국 대표 순례 관광 및 다도해의 경관 명소 발굴·조성 등에 나선다.

부산·울산·경남 등이 포함된 남동권은 ‘엔터테인먼트 휴양지대 구축’을 목표로 2029억원을 투입하며, 남부권 전체 공통사업으로 ▲스마트 관광환승시스템 개발 ▲선박·항공산업 연계 관광상품 개발 ▲선형 관광자원 상품화 등에 약 101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해안과 내륙, 섬 등 전남의 수려한 자원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가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서 지속가능한 관광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0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767억원, 일자리 창출 5521명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과 해양·내륙관광을 연계한 전남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남부권 관광개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자체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영·호

남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을 부각해 부처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이번 기본구상에 전남도가 포함된 남서권, 남동권 발굴사업이 반영되고 사업비도 증액됐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 기본구상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선제적으로 건의해 정부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남해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국토발전축의 중심지인 만큼 도가 남부권 관광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라며 “국가계획 반영으로 관광자원 활용 개발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한대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전남도 관광개발의 로드맵 역할을 할 ‘제7차 전남도 관광개발계획’은 지난 11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관계부처 협의 후 2022년 1월 고시될 예정이다. 기존 관광지 및 신규 관광단지, 전라사업 추진을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자원 개발에 약 2조9003억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립대, 전국드론축구대회·페스티벌

AI 인력 양성 비전선포식

전남도립대가 최근 제1회 총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 및 AI 드론 페스티벌을 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AI 드론산업’ 인력 양성 비전을 선포했다.

전국드론축구대회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음성 확인이 된 선수만 참가하는 등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대회 중 수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치렀다.

특히 개막식에서 전남도립대와 대한드론축구협회 간 업무협약 및 ‘AI 드론산업’ 인력 양성 비전선포식을 진행하고, 군무 드론 퍼포먼스인 드론라이트쇼도 펼쳤다. 또 국가자격 실기시험 시연, 방제드론 비행 시연 및 유인드론 비행 시

범도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다. 드론축구대회에서는 전남도립대 인공지능드론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과 전남대 드론축구팀 등 10개 팀이 우승을 향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초대 대회에서는 송의과학기술고 드론축구팀이 전남대팀과의 접전 끝에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다. 3위는 조선이공대, 4위는 세만금항공교육원이 각각 차지했고, 수상팀에게는 총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박병호 총장은 “드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국드론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하겠다”며 “전남도의 드론산업, 광주시의 AI산업을 융합해 초광역 상생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지역민과 함께하는 미래비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산림부산물 자원화 민관 협력

장흥산림자원화센터 등과 협약

전남도가 최근 산림직업 현장에서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흥군 산림자원화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전남도 산림자원 정책부서인 산림보전과와 산림자원연구소, 장흥군과 장흥군산림조합 산림자원화센터 등이 참여했다.

협약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위해 협력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 도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산물을 수거 및 활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조림이나 숲가꾸기 후 산에 남겨지는 수목 부산물이 전체 벌채량의 44%나 된다. 산림부산물을 산림에 방치하면 조림사업 등

산림 경영에 지장을 주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해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산림 경관을 해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흥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유치해 산림직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 연료, 축사 깔개, 친환경 퇴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장흥군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기반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제품 개발 등 실증 연구를 통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 지역 실정에 맞는 선도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오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전국 최초의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기반으로 도와 시군, 산림조합 간 협조체계를 구축, 다양한 활용방안 실증 연구를 추진해 탄소중립 가치를 선도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정보문화진흥원 6년 연속 투자유치 대상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21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2016년부터 6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진흥원은 올해 한해 예외기업과 투자액 120억원, 일자리창출 188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아몬드소프트, ㈜스튜디오오나 등 9개사가 실제 전남으로 이전하며 목표를 넘어섰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남도 문화예술과와 진흥원의 협의로 지역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사업’, ‘전시관·박물관 체험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융합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등)을 통해 콘텐츠 개발비용과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준근 원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남도 문화예술과의 전폭적인 지원과 진흥원 직원의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우수기업을 다수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등 전국 역의 10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52개사의 투자가 실현되어 총 300억원 규모의 투자 금액과 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새마을전남지도자대회... 이웃사랑 나눔 등 유공자 26명 표창



전라남도새마을회가 지난 24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2021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열어 올해 새마을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생명·평화·공동체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이귀남 전남새마을회장과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새마을지도자를 위해 유튜브로 중계했다.

김병윤 새마을지도자담양군협의회장과 서옥란 함평군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훈장 근면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새마을포장 3명, 대통령 표창 5명 등 26명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 제공>

도립도서관, 이주민-도민 문화이해 장 마련

다문화서비스 운영 기관 선정

세계문화체험마당 등 프로그램

전남도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운영 기관에 선정돼 4월부터 12월까지 총 3건의 프로그램을

진행, 이주민과 도민의 상호 문화이해 증진 기회를 마련했다.

이주여성을 위한 ‘복 큐레이션 & 그림책 독서교육’은 총 8회 운영해 80명이 참여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를 위한 다양한 책 배열 방법 및 시기별 독서 방법을 소개하고, 이주여성이 고민하는 자녀교육 문제를 코칭해 호응을 얻었다.

다문화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계 그림책 여행’은 총 6회 운영, 76명이 참여했다. 타국가 그림책 독서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강사의 나라 문화 소개·독후활동을 함께 진행해 참여 유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문화체험마당은 일본,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4개 나라의 문화·전통의상·전통놀이 체험으로 진행, 총 82명이 참여했다. 가족 단위로 참여해 다른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타국 전통놀이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 쌍촌지점 062)381-6551~2 | 유동지점 062)512-1984~5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동운지점 062)528-2640~2 |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농성지점 062)361-4472~4 | 운암지점 062)527-3295~6 | 비틀지점 062)381-1971~2 |
| 용산지점 062)526-0222~3 | 화정지점 062)372-0421~3 | 동림지점 062)513-8521~3 | 유덕지점 062)373-3235~6 | 운천지점 062)371-2772~3 |
| 지평지점 062)381-8212~3 |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 하나로마트동점 062)511-2901~3 |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